

보도시점 4.30.(목) 조간 < 4.29.(수) 12:00 >

'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 '26년 1분기 中企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298억 달러
- **품목1위** 화장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 역대 분기 최고 실적
- **국가1위** 對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 中企 수출 1위국 기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29일 (수) '2026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①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기업

'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한 298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잠정치 기준)를 기록하였다.

* 연도별 1분기 中企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23.1Q 268 (△9.6%) → '24.1Q 268 (+0.1%) → '25.1Q 273 (+1.7%) → '26.1Q **298 (+9.1%)**

온라인 수출은 3.0억 달러로, 미국(+25.1%), 중국(+43.4%), 영국(+191.6%) 등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분기 중 최초로 3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 연도별 1분기 中企 온라인 수출액(억달러) : 1위('26) 3.0, 2위('25) 2.2, 3위('24) 2.2

수출 중소기업 수는 64,706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63,033개사) 2.7% 증가하였고,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역시 2,735개사로 14.4% 늘었다.

* 온라인 수출기업수/증감율(개사/%) : ('24.1Q) 2,193 → ('25.1Q) 2,390 → ('26.1Q) **2,735(+14.4)**

② 중소기업 수출 품목별·국가별 특징

<주요 수출품목>

중소기업 주도 수출품목인 **화장품***의 경우 '26년 1분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35.1%)과 유럽(+43.7%)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며, 중동 수출 감소(△16.1%)에도 불구하고 21.8억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실적(+21.3%)을 달성했다.

* 화장품 역대 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26.1Q) **21.8**, 2위 ('25.3Q) 21.7, 3위 ('25.4Q) 21.6

* 주요 권역별 화장품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아시아) 10.4(+7.8), (북미) 4.6 **(+37.6)**, (유럽) 5.0 **(+43.7)**, (중동) 0.8(△16.1)

특히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74.2% 증가한 2.0억 달러로, 미국 (+60.8%), 중국 (+91%), 영국 (+282%)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반도체 (11.3억 달러, +55.6%)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고성능 통신장비, 클라우드** 서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출이 홍콩 (+214.8%), 베트남 (+35.4%), 대만 (+82.5%)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 반도체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홍콩 4.3(+214.8%), 베트남 2.8(+35.4%), 중국 1.7(+1.2%)

** 클라우드: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IT) 자원 통합·공유 서비스

반면 자동차 (14.7억 달러, △15.2%)는 러시아의 수입차 부과 세금 인상 및 중동 전쟁에 따른 해협 봉쇄 영향으로 6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주요 권역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CIS) 7.2 (△22.0), (중동) 3.4 (△10.5)

↳ CIS 주요 수출국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키르기) 4.0 (△21.9), (러시아) 1.0 (△36.6)

<주요 수출국>

'26년 1분기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국 중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인도, 태국 6개국은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미국,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4개국 수출은 감소하였다.

< '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단위: 억달러, %) >

국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태국	멕시코	인니
수출액	48.8	44.7	27.4	22.2	20.2	9.4	9.4	6.8	5.9	5.8
증감률	+10.6	△2.7	+9.7	△2.8	+86.3	+29.4	+23.6	+4.4	△4.0	△2.9
비중	16.4	15.0	9.2	7.4	6.8	3.2	3.1	2.3	2.0	1.9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스마트폰 부품용 동박 등 구리 가공제품 (3.0억 달러, +65.8%) 수출 호조와 의류 (1.5억 달러, +36.3%)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화장품 (4.1억 달러, 35.1%) 및 자동차부품 (2.9억 달러, 4.4%)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전력용기기 (2.6억 달러, △5.1%) 등이 기저효과로 감소하며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 (△2.7%)하였다.

또한, 1분기 중동 수출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16.9% 감소한 12.8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1분기 평균 수출규모 (13.8억달러)를 밑돌았다. 자동차 (3.4억 달러, △10.5%), 자동차부품 (1.0억 달러, △16.2%) 및 화장품 (0.8억 달러, △16.1%) 등 주요 품목의 수출도 동반 감소하였다.

특히, 1분기 중 3월 한 달만 살펴보면,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중동 수출액은 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9.5% 감소하였으나, 화장품,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이 아시아 등 주력 시장에서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3월 전체 수출액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 3월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아시아) 66.6 (+20.7), (북미) 18.6 (+4.5), **(중동) 2.89 (△49.5)**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등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지역 수출이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며,

“급격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 다양화, 주력 수출제품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추경으로 마련한 물류바우처 등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동향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를 기초로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적 분석
- 수출기업수는 수출자(화주) 기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기업규모 구분(대·중견·중소)은 발표당시 가장 최근 기업규모별 변동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
 - * (대기업) '26.2월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반영, (중견기업) '24년 결산 기준(산업부)
- 관세청 연간 무역통계 확정('27.2월)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규모구분('27.4월) 후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500)
		담당자	사무관	정지수 (044-204-7516)
			전문관	성지연 (044-204-7514)

참고 1

'26년 1분기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① (화장품 : 21.8억달러, +21.3%) 미국은 K-뷰티 현지화 마케팅 효과로 온라인 플랫폼 내 수요 증가와 북미 유통망 확대에 따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8분기 연속 최대 수출국 유지

○ 對유럽은 브랜드사의 현지 법인 설립, 자사몰 강화 등 온·오프라인 채널 확대에 따라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주요 권역별 수출('25.1Q→'26.1Q억\$) : (아시아) 9.7 → 10.4(+7.8), (북미) 3.3 → **4.6 (+37.6)**,
(유럽) 3.5 → **5.0(+43.7)**, (중동) 0.9 → 0.8(△16.1)

○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은 6,276개사로 전년(5,740개사)대비 증가, 신규 (+7.6%)수출 및 유지(+10.4%) 기업도 각각 역대 최대 기업수를 기록

* 화장품 수출중소기업 수 (천개사, '25.1Q→'26.1Q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전체) 5.7 → 6.3 (+9.3), (진입기업) 2.2 → 2.4 (+7.6), (유지기업) 3.5 → 3.9 (+10.4)

* 세부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 : 기초화장품 10.1(+28.0), 기타화장품 5.7 (+20.5),
메이크업용-립-아이 2.3(△5.2), 마스크팩 1.1(+46.7)

* 역대 화장품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 ('26) **21.8** → 역대 2위 ('25) 18.0 → 역대 3위 ('24) 15.4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미국 4.1 (+35.1), 중국 2.5 (△8.6), 일본 1.9 (+9.0),
홍콩 1.3(+23.7), 베트남 1.1 (+2.0), 러시아 0.9 (+13.9)

② (자동차 : 14.7억달러, △15.2%) CIS 중심으로 19개월 동안 지속된 선수취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과 중동 전쟁 여파로 해당 항로 영향권 국가向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6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

* 자동차 분기별 수출증감률(%) : '25.2Q+79.2 → 3Q+79.9 → 4Q+77.0 → '26.1Q△15.2

* 주요 권역별 수출('25.1Q→'26.1Q억\$) : (CIS) 9.2 → **7.2 (△22.0)**, (중동) 3.8 → 3.4 (△10.5)
↳ (키르기) 3.9(△21.9), (러시아) 1.0(△36.6)

* 역대 자동차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 ('25) 17.3 → 역대 2위 ('26) **14.7** → 역대 3위 ('23) 11.4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키르기스스탄 4.0(△21.9), 러시아 1.0(△36.6), 알바니아 1.0(+95.1),
카자흐스탄 0.9(△32.2), UAE 0.9(△20.8), 사우디아라비아 0.7(+55.8)

③ (반도체 : 11.3억달러, +55.6%) 글로벌 AI투자 확대로 對홍콩 수출은 글로벌 유통사의 수요 증가, 베트남(+35.4%, 시스템 +37.0% ↑·메모리 +72.4% ↑)은 현지 국내 가전 제조기업의 수요 확대 등 12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기록

* 반도체 분기별 수출증감률(%) : ('25.2Q)+9.9 → ('25.3Q)+12.0 → ('25.4Q)+13.0 → ('26.1Q)+55.6
 ※ 세부품목 : 시스템반도체 4.63억\$(+28.9%), 메모리반도체 4.58억\$(+264.8%)
 ↳ ('25.1Q→'26.1Q비중%) 17.3 → 40.6%

* 역대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 ('26) 11.3 → 역대 2위 ('22) 7.8 → 역대 3위 ('24) 7.8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홍콩 4.3(+214.8), 베트남 2.8(+35.4), 중국 1.7(+1.2), 대만 0.6(+82.5), 태국 0.5(△15.6), 미국 0.3(+29.5)

④ (플라스틱제품 : 10.9억달러, △2.8%) 세부품목 중 스마트폰필름류의 (△4.7%, 비중 61.0%) 對중 수출감소폭 확대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배터리 분리막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 지속

※ 세부품목별 수출액/비중(억\$/%) : (스마트폰 필름류) 6.7(비중61.0%), (용기) 1.9(17.0), (바닥갈래) 0.8(7.1)

* 플라스틱제품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25.1Q) 11.2(△5.5) → ('26.1Q) 10.9(△2.8)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미국 2.5(△1.0), 중국 1.9(△7.0), 베트남 1.5(+0.6), 일본 0.8(△1.0), 대만 0.3(+17.1), 멕시코 0.3(+3.0)

⑤ (자동차부품 : 10.1억달러, △0.7%) 주요 수출국인 미국(+4.4%)·일본(+8.4%)은 현지 완성차생산 확대에 따라 소폭 증가했으나, 중국은 자국 부품사 보조금 확대 등 자급률 확대에 따라 수입 부품 수요둔화로 '25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 지속

* 자동차부품 분기별 수출증감률(%) : '25.2Q+6.3 → '25.3Q+3.4 → '25.4Q△10.9 → '26.1Q△15.2

* 자동차부품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25.1Q) 10.2(△2.2) → ('26.1Q) 10.1(△0.7)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미국 2.9(+4.4), 멕시코 0.9(△8.0), 일본 0.8(+8.4), 베트남 0.5(△18.7), 중국 0.5(△30.7), 우즈벡 0.3(△16.0)

⑥ (반도체제조용장비 : 8.7억달러, +22.0%) 반도체 업황 호황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생산기지가 집중된 대만(+90.1%), 싱가포르

(+50.5%), 말레이시아(+56.5%) 등 주요 수출국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기록

* 역대 반도체장비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 ('26) 8.7 → 역대 2위 ('22) 8.6 → 역대 3위 ('21) 8.5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중국 3.5(+1.3), 대만 2.0(+90.1), 미국 0.8(△9.5), 싱가포르 0.7(+50.5), 일본 0.5(△26.2), 말레이 0.3(+56.6)

⑦ (합성수지 : 8.6억달러, △2.9%) '26년 2월 까지 국제 유가 하락 및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수출단가 지속 하락 등 감소세가 이어지다, 중동 전쟁 이후 유가 급등 및 3월 물량 급증으로 감소폭 상쇄

○ 세부품목중 플라스틱 용기 재료인 폴리프로필렌(△5.9%)과 코팅제 원료인 저밀도에틸렌(△12.2%)이 주요국 중심으로 감소

※ 합성수지 수출단가(달러/kg, 증감률%) : ('26.1월) 1.45 → ('26.2월) 1.41 → ('26.3월) 1.50

* 합성수지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25.1Q) 8.8(+9.9) → ('26.1Q) 8.6(△2.9)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중국 2.1(△3.2), 베트남 1.7(△0.9), 미국 0.6(△32.8), 인도 0.5(+17.3), 튀르키예 0.4(+16.6), 인니 0.4(△14.6)

⑧ (금은및백금 : 7.3억달러, +154.0%)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최대 수출국인 對홍콩(비중 79.4%)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와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기록

* 역대 금은및백금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 ('26) 7.3 → 역대 2위 ('25) 2.8 → 역대 3위 ('10) 2.2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홍콩 5.8(+147.5), 스위스 0.4(+272.4), 영국 0.3(+2,899.8), 중국 0.2(+170.8), UAE 0.2(+4,096.7), 베트남 0.1(+57.0)

⑨ (전자응용기기 : 6.2억달러, +2.3%) 최대 시장인 對미국 전년동기 수출은 기저효과에 따라 감소('25.1Q △25.8%, 이차전지 생산공장向 장비↓) 했지만, 1분기는 수출호조세(K-뷰티 의료기기, 반도체 측정용 원자현미경 장비 등↑)로 증가 전환과 동시에 역대 1분기 3위 실적 기록

○ 그 외 주요 수출국인 對인도, 태국으로 미용 의료기기(고주파, 레이저 등) 수요 확대로 '26년 1분기 수출 증가세를 견인

* 역대 전자응용기기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 ('24) 6.5 → 역대 2위 ('22) 6.2 → 역대 3위 ('26) 6.2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미국 1.5(+9.1), 일본 0.5(△14.1), 중국 0.4(△17.3), 인도 0.4(+64.5), 태국 0.3(+26.6), 러시아 0.2(+0.9)

⑩ (석유제품 : 6.0억달러, +76.4%)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원유 수급난에 따른 주요 수출국(對호주·뉴질랜드)의 수요 급증에 따라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기록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kg, 증감률%) : ('26.1월) 0.79 → ('2월) 0.74 → ('3월) 1.01

○ 일본은 3월 수출의 소폭 증가에도, 2월까지 글로벌 저유가 지속에 따른 단가하락과 日 현지 정유공장 통폐합 이후 수출급증('25.1Q +170.7%)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1분기 감소세 전환

* 역대 석유제품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 ('26) 6.0 → 역대 2위 ('22) 5.8 → 역대 3위 ('23) 4.9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호주 1.2(+1,904.1), 뉴질랜드 1.0(+252.1), 일본 0.7(△30.5), 미국 0.6(+51.1), 인도 0.4(+119.7), 필리핀 0.4(+537.4)

【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상위 10대 품목별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 】

구분	2026년								
	1월	증감률	2월	증감률	3월	증감률	1분기	증감률	비중
화장품	709	+36.6	632	△0.1	839	+29.9	2,179	+21.3	7.3
자동차	469	+14.8	475	△24.2	526	△24.6	1,470	△15.2	4.9
반도체	401	+70.7	287	+15.9	440	+81.2	1,128	+55.6	3.8
플라스틱 제품	385	+11.7	309	△19.7	398	+0.9	1,092	△2.8	3.7
자동차부품	336	+8.9	316	△9.8	361	△0.2	1,013	△0.7	3.4
반도체제조용장비	243	+21.0	260	+10.1	367	+32.9	870	+22.0	2.9
합성수지	288	+8.8	255	△21.0	313	+6.3	855	△2.9	2.9
금은및백금	224	+262.4	299	+111.4	203	+146.0	726	+154.0	2.4
전자응용기기	187	+18.6	178	△9.0	251	+0.8	616	+2.3	2.1
석유제품	173	+58.7	184	+50.0	245	+123.6	603	+76.4	2.0
10대 소계	3,414	+30.9	3,195	△2.0	3,943	+17.6	10,552	+14.4	35.4
전체 합계	9,936	+23.7	8,744	△8.0	11,087	+13.7	29,767	+9.1	100.0

참고 2

'26년 1분기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 ① (중국 : 48.8억달러, +10.6%) 상위 수출 품목인 동제품(스마트폰 부품용 동박↑, +126.5%)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등 중간재 수출 부진에도 3분기 연속 최대 수출국 유지

* 중국 분기별 수출증감률(%): ^(24.3Q) △6.0 → ^(4Q) +1.5 → ^(25.1Q) +5.1 → ^(2Q) +1.7 → ^(3Q) +14.2 → ^(4Q) +7.6 → ^(26.1Q) +10.6

* 對중국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25.1Q) 44.1(+5.1) → ('26.1Q) 49.2(+13.8)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반도체제조용장비 3.5(+1.3), 동제품 3.0(+65.8), 화장품 2.5(△8.6), 합성수지 2.1(△3.2), 의류 1.5(+36.3)

- ② (미국 : 44.7억달러, △2.7%) 화장품(13분기 연속 증가)·자동차부품(전기차 배터리부품) 등 호실적이 이어졌으나, 기타기계류(이차전지용 자동화설비 수출 감소 기저효과) 등 수출 부진으로 전년 보합 수준이나, 역대 1분기 3위 실적 기록

- 對미 화장품(+35.1%, 기초 +42.8%, 메이크업류 +57.3%)은 기초 제품이 주력 품목이나 최근 향수(+323.8%) 등 수출 품목의 다양화와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로 8분기 연속 對미 수출 1위 품목 유지

* 對미 화장품 월별 수출추이(억달러%) : ^(26.1월) 1.2(+40.9) → ^(2월) 1.2(+16.4) → ^(3월) 1.6(+48.6)

* 역대 對미국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24) 46.0 → 역대 2위('25) 45.9 → 역대 3위('26) 44.7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화장품 4.1(+35.1), 자동차부품 2.9(+4.4), 전력용기기 2.6(△5.1), 플라스틱제품 2.5(△1.0), 전자응용기기 1.5(+9.1), 건전지및축전지 1.4(+108.9), 기계요소 1.3(△1.9), 기타기계류 1.1(△31.0)

- ③ (베트남 : 27.5억달러, +9.7%) 상위 10대 품목 중 반도체(현지 국내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체 수요↑), 계측제어분석기(반도체 검사장비 수요↑),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1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

* 베트남 분기별 수출증감률(%): ^(25.1Q) △3.6 → ^(2Q) △4.8 → ^(3Q) +6.9 → ^(4Q) △0.3 → ^(25.1Q) +9.7

* 역대 對베트남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22) 28.9 → 역대 2위('26) 27.5 → 역대 3위('24) 26.0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반도체 28(+354), 합성수지 1.7(△09), 플라스틱제품 15(+06),
 화장품 1.1(+20), 기구부품 1.1(+32), 계측제어분석기 09(+66.1)

④ (일본 : 22.2억달러, △2.8%) 주요 수출 품목인 화장품(스킨케어 브랜드 인기↑), 자동차부품의 수출 증가에도 석유제품이 작년 수출 급증(日정유공장 통폐합으로 공급부족 및 항공유 수요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크게 감소하면서 '25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 지속

* 對일본 수출액(억달러, %) : ('25.1Q) 22.8(2.4) → ('26.1Q) 22.7(△1.3)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화장품 1.9(+9.0), 자동차부품 0.8(+8.4), 플라스틱제품 0.8(△1.0),
 석유제품 0.7(△30.5), 기계요소 0.7(+4.1), 정밀화학원료 0.7(+72.6)

⑤ (홍콩 : 20.3억달러, +86.3%) 금은빛백금(비중 28.5%)은 금값 상승 영향으로 관련 품목(Gold bar, sheet 등)의 강한 증가세 지속, 반도체(+214.8%, 메모리 +560.4%↑)는 업황 호조에 따라 글로벌 유통사 수요 확대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기록과 동시에 역대 분기 2위 기록

※ 역대 분기 기록(억달러) : 1위('25.4Q) 26.1 → 2위('26.1Q) 20.3 → 3위('10.2Q) 15.7

* 역대 對홍콩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26) 20.3 → 역대 2위('15) 13.0 → 역대 3위('16) 12.5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금은빛백금 5.8(+147.5), 반도체 4.3(+214.8),
 무선통신기기 2.1(+790.4), 화장품 1.3(+23.7)

⑥ (대만 : 9.4억달러, +29.4%)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현지 클러스터 확대로 반도체제조용장비(+90.1%), 반도체(+82.5%), 계측제어분석기(+99.6%, 반도체 테스터 장비↑) 등 수출 급증하면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기록

* 역대 對대만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26) 9.4 → 역대 2위('22) 7.5 → 역대 3위('25) 7.3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반도체제조용장비 20(+90.1), 반도체 06(+82.5), 화장품 05(+19.7),
 정밀화학원료 0.4(+27.3), 계측제어분석기 0.3(+99.6),

⑦ (인도 : 9.4억달러, +23.6%) 인도 정부의 제조업 부흥정책 관련 산업의 다변화 영향으로 금속공작기계(철강 가공 설비↑), 계측제어기기(의료용 진단기기↑), 기타기계류(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인도 투자↑) 등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기록

* 역대 對인도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26) 9.4 → 역대 2위 ('24) 7.74 → 역대 3위('22) 7.68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금속공작기계 0.6(+151.2), 합성수지 0.5(+17.3), 계측제어분석기 0.5(+40.9), 석유제품 0.4(+119.7)

⑧ (태국 : 6.8억달러, +4.4%) K-뷰티 브랜드사의 체험형 마케팅 확대 등 현지화 전략에 따라 화장품(클렌징·메이크업 수출↑), 전자응용기기(고주파 등 미용기기) 수출이 증가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기록

* 역대 對태국 수출액(억달러) : 역대 1위('26) 6.8 → 역대 2위 ('24) 6.5 → 역대 3위('25) 6.5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철강판 0.5(+13.4), 반도체 0.5(△15.6), 화장품 0.5(+11.4), 해조류 0.4(+20.3), 합성수지 0.3(△7.2), 전자응용기기 0.3(+26.6)

⑨ (멕시코 : 6.1억달러, △1.6%) 현지 국내기업의 완성차 제조 관련 품목인 산업용 전기기기(자동차부품용 전선 수요↑), 철강판(차량용 알루미늄 복합패널 수요↑), 플라스틱제품(차량용 PU가죽 제조용 합성피혁↑) 수출 증가에도, 기타기계류(전년 완성차 제조시설 투자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총 수출은 소폭 감소

* 對멕시코 수출액(억달러, %) : ('25.1Q) 6.1(△9.3) → ('26.1Q) 6.1(△1.5)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자동차부품 0.9(△8.0), 산업용 전기기기 0.5(+0.2), 철강판 0.4(+4.5), 플라스틱 제품 0.3(+3.0), 합성수지 0.3(+39.5), 금형 0.2(+7.9), 기타기계류 0.2(△47.3)

⑩ (인도네시아 : 5.8억달러, △2.9%) 합성수지(△14.6%)·편직물(△10.6%) 등 중간재 수출품목은 중국발 공급과잉 영향과 화장품은 바이어 재고 조정 등의 영향으로 '25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 지속

* 對인도네시아 수출액(억달러, %) : ('25.1Q) 6.0(2.9) → ('26.1Q) 5.9(△0.0)
 *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합성수지 0.4(△14.6), 화장품 0.3(△11.5), 편직물 0.3(△10.6), 철강판 0.2(△16.4), 기호식품 0.2(+67.6), 자동차부품 0.2(+10.9)

【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상위 10대 국가별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 】

구분	2026년								
	1월	증감률	2월	증감률	3월	증감률	1분기	증감률	비중
중국	1,719	+37.9	1,273	△19.9	1,886	+19.8	4,878	+10.6	16.4
미국	1,436	+1.2	1,302	△14.3	1,733	+4.7	4,471	△2.7	15.0
베트남	978	+30.7	770	△13.6	1,001	+15.4	2,749	+9.7	9.2
일본	732	+1.0	656	△13.2	829	+3.6	2,217	△2.8	7.4
홍콩	606	+114.0	678	+53.1	743	+105.4	2,027	+86.3	6.8
대만	312	+64.6	234	△12.1	397	+45.4	943	+29.4	3.2
인도	292	+28.4	298	+14.5	345	+28.3	935	+23.6	3.1
태국	213	+5.7	206	△7.8	260	+15.2	679	+4.4	2.3
멕시코	184	△5.6	185	△10.2	219	+3.6	589	△4.0	2.0
인도네시아	199	+1.8	175	△19.3	205	+11.3	580	△2.9	1.9
10대 소계	6,673	+22.8	5,778	△9.3	7,617	+18.6	20,067	+10.1	67.4
전체 합계	9,936	+23.7	8,744	△8.0	11,087	+13.7	29,767	+9.1	100.0

참고 3

‘25년 3분기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 온라인수출 : ‘26년 1분기 수출은 3.0억달러(+38.2%) → 1분기 최대 실적 달성

* 온라인수출 : 관세청 정식통관자료 중 수출신고서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건을 기준으로 분석

□ (총괄) ‘26년 1분기 온라인 수출은 화장품(비중 65.8%)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역대 분기 실적 중 최초로 3억달러 돌파

* 역대 1분기 온라인 수출액 : ^{역대1위}(‘26) 3.0억달러(+38.2%) → ^{역대2위}(‘25) 2.2(△0.5) → ^{역대3위}(‘24) 2.2(+35.6)
 중소기업 전체 수출 내 온라인 수출 비중(%) : ‘24.1Q 0.83 → ‘25.1Q 0.81 → **‘26.1Q 1.02**

→ 특히, 온라인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이 70.0%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분야를 선도

○ ‘26년 1분기 온라인 수출기업수는 2,735개사(전년동기대비 +14.4%)

* 온라인 수출기업수/증감율(개사/%) : (‘24.1Q) 2,193 → (‘25.1Q) 2,390 → (‘26.1Q) **2,735(+14.4)**

< 온라인수출 주요 특징 >

○ (품목) 화장품은 미국(+60.8%)이 역대 분기 2위 실적으로 크게 증가, 중국(+91%)·영국(+282%) K-뷰티 인기 증가로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의류(△2.2%)는 중국(+96.4%)의 수출 증가에도 주요 수출국인 일본(△19.7%)·미국(△40.9%)의 감소세 전환으로 소폭 감소

○ (국가) 영국(화장품비중 78.3%, +282.2%), 네덜란드는 유럽 시장의 온라인수출 핵심 허브로 온라인 화장품 수출 증가세를 견인

- 미국(+296.1%)·중국(+1,291%)에서 K-이너뷰티 열풍으로 축산가공품(다이어트식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세 급증

【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품목 (백만 달러, %) 】 【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국가 (백만 달러, %) 】

구분	‘25.1Q	‘26.1Q	증감률
1 화장품	115	200	+74.2
2 의류	24	23	△2.2
3 컴퓨터	21	18	△12.2
4 축산가공품	4	10	+172.1
5 문구및완구	8	9	+22.0
주요품목 소계	171	261	+52.6
온라인수출액	220	304	+38.2

구분	‘25.1Q	‘26.1Q	증감률
1 미국	103	129	+25.1
2 중국	26	38	+43.4
3 일본	29	30	+3.1
4 영국	8	23	+191.6
5 네덜란드	8	19	+119.1
주요국가 소계	174	237	+36.2
온라인수출액	220	304	+38.2

참고 4

수출 품목의 세부 품목 예시

품목명 (MTI 3단위)	세부품목 (수출신고서 예시)
플라스틱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플라스틱 접착제, 필름, 포장용기, 인테리어용 바닥재, 블라인드 등
자동차 부품	기어박스, 제동장치, 모터, 내연기관,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등
반도체제조용장비	반도체 소자 제조장비, 여과기, 청정기 등
화장품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용 화장품 등
합성수지	ABS수지, 실리콘수지,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등
반도체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집적회로 및 개별소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철강판	착색아연도강판, 용융아연도강판, 철 및 비합금강냉연강판 등
자동차	승용차(DKD방식 : 현지재조립), 중고차 등
기계요소	밸브, 베어링, 스크류, 스프링 등
기타기계류	반도체 칩 본딩 장치, 이차전지 자동화 장비, 프레스, 분쇄기, 금속처리용 기계류 등
계측제어분석기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반도체제조 전용 시험기, 광학식 측정기 등
전자응용기기	자동차 전장품, 화재경보기, 배터리 충전기, 실험용 살균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의료용전자기기 등
산업용전기기기	케이블, 전동기, 전원장치 등
의약품	자가진단키트, PCR 시약 및 키트 등
정밀화학원료	반도체/디스플레이 증착가스, 배터리 원료, 도금원료 등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휴대폰 부품, 카메라 모듈 등
동제품	연성동판적층판(반도체·스마트폰 부품), 동판, 구리 스트랩 등